

10. 효과적인 항만운영모델 개발을 위한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

물류시스템공학과 김 공 원
지도교수 곽 규 석

항만은 세계경제 체제에 따라서 생산과 무역구조의 변화 및 컨테이너화의 확산,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등 물류 환경변화에 의하여 단순 하역기능에서 복합 물류기능의 집적체로 발전하고 있다. 특히 경제 및 제조활동의 지역거점화에 의해 물류네트워크상 한 개의 노드 기능에서 점차 확대되어 물류중개 허브(hub)로 성장함과 동시에 항만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의 전략적 전초기지로 그 중요성이 심화되고 있다. 특히, 기존의 1국가 1물류거점 전략을 다 국가 1물류거점으로 변환하고 있어, 개도국의 비중이 높은 아시아 지역은 생산 및 물류거점으로 그 입지가 확고해 지고 있다.

이에 본 논문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항만 운영 모델에 적용하기 위하여 항만관련 기관 및 업체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25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방법을 수행한다.

델파이 방법이란 전문가 집단의 의견과 판단을 종합하여 합의점을 찾아내는 조사방법이다. 이런 방법은 집단 의사결정이 개인의 의사결정보다 유효하며 시간을 할애하여 한 장소에 모이지 않고도 합의를 유도해 낼 수 있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.

여기에서는 주로 RCA 기법을 이용하였으며, 이는 특정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 패널 집단이 의견 조율을 통해, 탐색적으로 그 원인이 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나가는 방법이다.

그 결과 항만운영모델이 100일 때 대분류의 전략부문, 운영부문, 자원부문, 조직부문, 관련기관부문, 관련업체부문, 연계수송부문이 항만운영모델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분석한 결과 전략부문은 29%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다음으로는 운영부문이 24%로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다.

조직부문은 17%, 자원부문은 13%, 연계수송부문이 9%, 관련업체부문은 6%, 관련기관부문은 3%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.

대분류의 영향에 따른 중분류의 요인들이 항만운영모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략부문의 항만경영 전략효과가 11.9%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.

다음 순위로는 운영부문의 화물처리과정이 9.9%, 전략부문의 항만경영 전략수립이 8.7%, 운영부문의 정보처리과정이 7.0%, 조직부문의 관리조직의 발전 가능성이 5.8%, 전략부문의 항만경영 전략수립이 5.5% 순으로 항만운영모델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.